

# 낙동강 영산전투시 북한군의 도하작전 분석

장 성 진\*

1. 머 리 말
2. 북한군 도하작전 교리
3. 영산전투시 북한군 도하작전
4. 맺 음 말

## 1. 머 리 말

지금까지 6·25전쟁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이 진행되어 왔다. 이런 다각적인 분석으로 6·25전쟁의 원인, 과정, 그리고 결과 측면에서 점차 연구의 깊이와 폭이 심화되어 가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과 한국 중심의 사료에서 벗어나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자료를 통해 전쟁을 분석함에 따라 이해의 깊이를 더하고 있다. 특히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간행한 공간사는 최근 공개된 러시아와 중국의 문서를 통해 전쟁의 과정을 대폭 정리하고 보강함에 따라 6·25전쟁의 경과에 대한 연구 기반의 틀을 닦아 놓았다.<sup>1)</sup> 또한

\* 육군사관학교 전사학 강사

1)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4~2010.

김광수는 북한 전쟁수행 연구를 위한 문헌과 자료를 제시하였고,<sup>2)</sup> 이후 박사논문을 통하여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에 대한 전략적 판단 배경과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sup>3)</sup> 하지만 북한군의 전반적인 전쟁수행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였기 때문에 북한군의 전술, 교리와 이를 적용한 각 전투사례에 대한 분석은 미흡한 편이다.

6·25전쟁에 대한 초기 연구는 피·아의 관점에 의한 종합적 분석이 제한되었다. 이는 당시 북한군의 교범, 명령문 등 사료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일방적인 입장에서 기술하고 그에 따른 교훈을 도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낙동강 방어작전 분석은 북한군의 실패요인보다는 유엔군의 승리요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군사편찬연구소가 간행한 『6·25전쟁사』에서는 한미연합지상군의 준비태세와 조직적인 방어, 정부의 총력전 체계 구축과 전쟁지도, 한미군 수뇌부의 작전지도, 그리고 성공적인 공·지합동작전 수행을,<sup>4)</sup> 일본 전사교관 사사끼 하루다까는 유엔군의 병력집중속도, 반격병력의 신속한 기동을 유엔군의 승리요인으로 보았다.<sup>5)</sup> 이 외에도 천연적인 장애물의 활용, 유엔군의 제공권 장악, 미 해군의 항모 항공지원과 함포지원, 미군의 신속한 전개, 내선작전의 이점 활용 등을 낙동강 방어선 성공요인으로 보고 있다.<sup>6)</sup>

일방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북한군 전쟁수행에 대한 실패 요인 분석은 김광수의 논문이 주목된다. 그는 낙동강 전투에서 북한군이 실패한 요인에 대해 미 공군의 보급선 차단 폭격에 의한 인민군 보급 유지 실패와 북한군 사단 화력(포병)과 전투기술 수준의 전반적인 약화, 그리고 전투력의 분산 운용과 김일성의 전략적 무모성 등을 지적하였다.<sup>7)</sup> 하지만 세부 전투사례

2) 김광수, 「북한의 한국전쟁수행 연구」를 위한 문헌 및 자료분석」 『군사』 55, 2005.

3)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박사논문, 2008.

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 낙동강선 방어작전,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5)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이원복 역, 『한국전쟁』 2-부산 교두보 확보(서울: 명성출판, 1991), pp.307~310.

6) 최용성, 「낙동강 방어선 형성과정과 방어 성공 요인」 『6·25전쟁 60주년 학술세미나』 (대구: 경상북도·육군3사관학교, 2010. 6. 24), pp.33~38.

7)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pp.232~236.

와 교리에 대한 분석보다는 북한군의 공격패턴을 일반화하여 설명하였다. 따라서 북한군 교리가 실제 전투에 어떻게 투영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시 북한군 교리 중 핵심 문제는 바로 도하작전이었다. 역사적으로 한반도 지형은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낙동강 등 동서로 발달된 강을 중심으로 적의 침공에 대비하였다. 북한의 남침공격도 한강 일대에서 국군의 주력을 포위하고, 유엔군이 참전하기 이전에 전 국토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금강, 낙동강을 신속하게 극복해야만 하였다.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군은 1948년에 소련군의 『강행도하』 교범을 번역하였고,<sup>8)</sup> 공병연대는 대동강 상류에서 도하훈련을 하였다. 또한 북한은 부산을 향해 진격하는 북한군의 보급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후방지역작전에서 적절한 도하지점을 운용하여 교통망을 확보해야만 하였다.<sup>9)</sup> 이와 같이 6·25전쟁 초기 도하작전은 전쟁 준비 및 실시간에 모두 중요한 작전이었다. 하지만 도하작전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편성에 있어서 공병대대와 도하장비는 도하작전 수행을 위하여 충분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 초기 북한군은 한강과 금강을 도하할 수 있었고 낙동강 도하에도 일부 성공하였던 것이다.

도하작전 중에서도 낙동강 방어작전간 주요 전투는 바로 영산전투였다. ‘낙동강 돌출부’ 전투라고도 불리어지는 이 전투는 유엔군에게 커다란 위협이었는데 북한군이 영산을 거쳐 밀양으로 진격하면 유엔군은 퇴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영산전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영산전투가 낙동강을 도하하여 영산일

8)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강행도하』 (1945년 도판, 1948년 9월 번역). 본 교범은 육군박물관 소장 자료임.

9) 후방지역작전에 대한 보급선 확보와 공병대대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당시 전선사령부 공병 부부장이었던 주영복의 회고록을 통해 알 수 있다. 실제 미군의 B-29 40여대에 의한 한강철교 피격으로 도하작전 및 보급선 유지에 혼란이 있었으며, 당시 한강철교는 30톤급 화차 10량으로 매일 5번씩 한강을 건널 때 비로소 북한군을 지탱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였다. 주영복, 『내가 겪은 조선전쟁』 1(서울: 고려원, 1990) pp.83~84, pp.351~356, 370.

대까지 교두보를 확보해 나간 도하작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연구는 도하작전의 교리 측면보다는 어떻게 유엔군이 대응하여 승리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 분석하였다. 영산전투는 도하작전의 표준 모형을 제시하는 대표적인 전투이며, 도하작전의 두 가지 모형인 '계획적 강행도하'와 '직접 강행도하'를 모두 살펴볼 수 있는 전투이다.<sup>10)</sup> 8월 공세시 영산전투는 북한군의 추격작전간 시행된 도하작전으로 공주, 대평리, 단양 도하작전 등과 같이 직접 강행도하에 해당되며, 9월 공세시 영산전투는 협조된 공격하에 수행된 계획적 강행도하에 해당되므로 같은 장소에서 수행된 각기 다른 도하작전의 전투수행 모습을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닌다. 또한 북한군의 교범뿐만 아니라 이를 반영하는 전투명령, 지령, 그리고 식별된 북한군 전투수행 모습 등에 대한 사료적 접근이 가능하다.<sup>11)</sup>

영산전투는 북한군에게 있어서 성공적인 도하작전이면서 동시에 실패한 도하작전이다. 8월 공세시 북한군 제4사단은 낙동강을 도하하여 영산까지 진출하였으며, 9월 공세시 북한군 제9사단은 도하 이후 6마일의 폭과 8마일 깊이의 돌파구를 형성하여 낙동강 방어선의 최대 위협이 되었다. 이와 같이 제4, 9사단 모두 도하에 성공하여 교두보를 형성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성공적인 도하작전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반면에 8, 9월 공세시 영산전투에서 공중 폭격과 해병대의 역습으로 인하여 제4사단은 거의 모든 전투력이 소진되었고, 제9사단도 돌파구를 확장할 수 없었다. 도하 성공 이후 교두보를 확장하지 못하고 낙동강 서측으로 다시 격퇴되었음을 고려해 볼 때 북한군의 도하작전은 실패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10) 북한군의 도하작전은 국군의 정밀도하와 유사한 "계획적준비밀에 진행하는 강행도하(계획적 강행도하)"와 급속도하와 유사한 "전진과정에서 진행하는 강행도하(직접 강행도하)"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사령부, 『북괴군 군사상식』, p.311.

11) 노획문서중에서 8, 9월 영산전투와 관련된 북한군 명령, 지령 등이 있기 때문에 도하작전의 의도와 능력을 분석할 수 있고, 북한군 전투수행 모습은 미(美) 육군성(陸軍省) 전사실(戰史室)의 애플만(Roy E. Appleman)에 의해 객관적으로 기술하였기 때문에 북한군 교리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 Washington, D. C. : Department of the Army, 1961),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육군본부, 2001).

영산전투에 대한 기존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북한군 도하작전 교리를 중심으로 북한군은 영산전투에서 어떻게 초기 낙동강 도하에 성공하여 교두보를 형성하였으며, 도하 이후에는 왜 교두보를 확장하지 못하였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상기 목적을 위해 제2장에서 북한군 도하작전 교리를, 제3장에서는 8, 9월 공세시 영산전투 도하작전을, 그리고 맺음말에서는 도하작전의 성공과 실패요인을 분석하겠다.

## 2. 북한군 도하작전 교리

북한군 도하작전 교범은 소련군 교리를 번역한 『강행도하』이다. 북한군은 강행도하를 “적이 방어하고 있는 강안을 강을 극복함으로써 공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sup>12)</sup> 즉, 강행도하란 강을 극복하여 주력의 도하 및 대안에서의 교두보 확대와 전투진입을 보장하는 교두보를 점령하는 것이며, 군단 제1계대 사단의 대안으로의 진출 및 전개로 끝나게 된다.<sup>13)</sup> 북한군 기준 교범인 『야전규정』에서는 도하작전의 성공요인을 기습(不意性), 병력 집중, 그리고 잘 조직된 전투보장으로 보았다.<sup>14)</sup> 특히 도하지역 선정, 신속한 교두보 점령, 넓은 전선에 동시 도하, 허위도하, 도하준비 및 자재에 대한 보안책 등을 마련하여 기습을 달성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군 교범 『강행도하』의 목차는 <표 1>과 같이 제1~4장은 개론, 도하준비, 도하실시, 교두보 점령 및 확보로 도하작전 순서에 따라 구성하였고, 제5~7장은 특별한 조건, 기계화 부대 및 기병, 퇴각 및 전투이탈시 등 특별한 조건에 대한 도하작전을 다루고 있다.

12)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강행도하』, p.1.

13) 상계서, p.1.

14)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1945년도 출판, 1948년 4월 번역, p.155.

〈표 1〉 『강행도하』의 목차

제1장 총 축	제4장 군대의 도하 및 대안에서 그들의 동작
제2장 강행도하조직	1. 제1제대의 강행도하 및 그들로서 주력의 도하를 보장하기 위한 교두보 점령
1. 도하지역 및 도하점 선택	2. 주력의 도하 및 그들의 대안에서의 전개
2. 강 및 적 방어에 대한 정찰	제5장 특별한 조건에 있어서의 강행도하
3. 도하계획 작성	1. 전진과정에서의 직접 강행도하
4. 지휘 조직	2. 봄과 가을에 있어서의 강행도하
5. 군대가 강행도하 전에 있어서 출발진지 점령	3. 넓은 강의 강행도하
6. 강행도하 준비의 기술적 보장	4. 산지(山地) 강에서의 강행도하
7. 전투보장에 관한 대책들의 특성	제6장 기계화 연합부대 및 기병의 강행도하
8. 정비사령근무 및 조절조직	1. 전차연합부대와 기계화연합부대의 강행도하
제3장 도하형태와 도하방법	2. 기병 연합부대의 강행도하
1. 상륙도하	제7장 퇴각 및 전투이탈시의 군대도하
2. 도선판도하	1. 총 축
3. 교량도하	2. 도하준비
4. 여덟도하	3. 도하진행
5. 수영도하	강행도하부록
6. 빙상도하	
7. 군대도하근무에 있어서 구조근무 조직	

(1) 도하준비 : 도하지역 선택 ~ 도하시 전투보장

도하지역은 “도하지점이라고 부르는 도하를 하기에 가장 유리한 지점에서 도하를 하기에 준비되는 출발강안에 강지역을 도하하기 할당한 지대”이다.<sup>15)</sup> 사단(군단)은 사단장(군단장)이 선택하는 지역에서 도하지역을 선택하고, 연대는 1~1.5km, 사단은 3~4km 정면에서 도하하며, 도하에 유리하고 편리한 지역에 대한 판단기준은 〈표 2〉와 같다.<sup>16)</sup> 이와 같은 도하지역에 대한 판단기준은 크게 변화하지 않으며, 동시에 적이 강력하게 방어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sup>17)</sup> 도하지역 선정은 기습 달성의 요건이 되므로 피아 어디에서 도하하고 방어할지는 상당히 중요하다.

15)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강행도하』, p.9.

16) 상계서, pp.18~20.

17)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p.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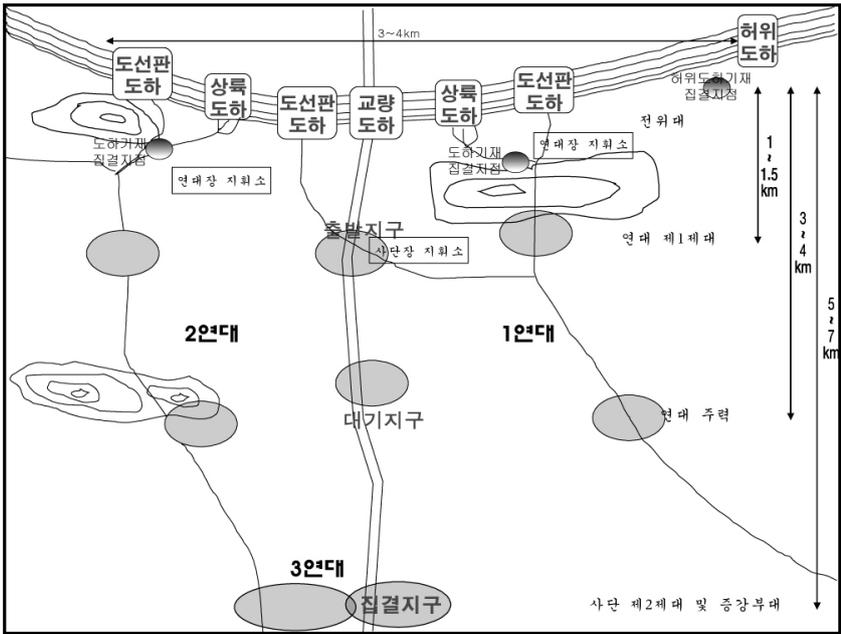
〈표 2〉 유리하고 편리한 도하지역

- 공격하는 측으로의 만곡(彎曲)과 돌기(突起)부가 있는 지역  
(적에 대한 익측사와 교차사격진행의 가능성)
- 여둑(여울)을 가진 지역과 교량도하지역 및 섬 들이 있는 지역  
(도하기재 지출이 없이 하는 것)
- 적배치 중심에 대한 감시와 전망을 할 수 있는 높은 강으로 되는 지역
- 강안에서 소유하고 있는 도하기재들을 물위에 내리우기 편리한 지점의 현존군대의 신속한 승선(乘船)과 항선(降船)을 할 수 있는 지점이 있는 지역 및 교량의 신속한 수선과 구축을 할 수 있는 지역
- 자기의 강안에서 군대의 음밀한 혹은 위장된 배치를 할 수 있는 지점을 가지고 있는 지역
- 강으로의 음폐접근지가 있는 지역 및 중심에서 선창으로의 군대의 음밀전진을 할 수 있으며 또 전선을 따라서 선창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음폐로가 있는 지역

※ 출처 : 『강행도하』, pp.18~19.

〈그림 1〉에서와 같이 도하지역에는 도하지점, 출발지구, 대기지구, 도하기재 집결지구, 집결지구 등이 포함된다.<sup>18)</sup> 북한군의 도하지역 약도를 고려해볼 때, 북한군의 도하공격을 저지 및 방해하기 위해서는 적의 출발지구, 집결지구 등에서 수행하는 사전 도하작전 준비과정을 방해하고, 도하지역에 설치 예상되는 도하지점을 판단하여 적이 도하하지 못하도록 대응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18)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강행도하』, pp.9~11. 도하지점은 군대의 도하를 진행하기 위하여 설비된 도하지역의 일부분으로 도하점 및 출발선을 포함한다. 출발지구란 도하제대들이 출발선 진출 신호를 대기하며, 인원과 기재할당을 진행하기 위해 1~2km 거리 적 감시로부터 은폐된 지점이다. 보통 1개 개대 포와 1개 대대 전차에게 출발지구를 지정한 다. 대기지구는 강으로부터 3~4km 은폐지점으로 군 연합부대와 부대들이 자기의 중강 기재와 함께 출발지구로 진출하기까지 대기하며 제대 단위 및 도하 부대 단위 할당을 진행하는 곳이다. 도하기재 집결지구는 도하물자 및 도하기재들을 사용하게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강에서 가까운 곳에 선택한 적감시로부터 은폐된 지점이다. 집결지구는 군대가 대기지구로 진출하기전 적 감시로부터 은폐된 지점으로 군단 제1제대 사단 주력의 집결 지구는 4~7km이며, 군단 제2제대 사단은 7~12km, 군 연합부대는 25~35km이다.



※ 출처 : 『강행도하』 부록 13, 부록 18 내용 참조, 재구성

〈그림 1〉 보병사단 도하지역 약도

도하지점은 군대의 도하방법에 따라 상륙도하점, 도선판도하점, 교량도하점, 수영과 여둑(여울) 그리고 얼음위 도하점으로 구분된다.<sup>19)</sup> 이 중에서 상륙도하점, 도선판도하점, 교량도하점은 중장비 도하를 위한 지점이며, 작전지속능력을 위해서는 인력뿐만 아니라 물적 자산까지 도하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도하지점의 선택과 준비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하지역과 도하점 선택에 대한 최종선택은 정찰을 통해서 확정한다. 강

19) 상계서, pp.11~13. 상륙도하점은 보병(기병) 연합부대와 부대 및 그들의 무장들을 도하하기 위하여 지정되며, 도선판도하점은 포, 전차, 기타 각종운수기재를 포함한 화물을 도하하기에 지정되며, 교량도하점은 규정도하기재로 가설된 교량 혹은 상설 교량으로 군대를 도하하는 것이며, 여둑도하점은 도하기재 사용 없이 군대와 그들의 기재로 도하하는 것으로 통상 2~3개의 여둑으로 구성된다. 수영도하점은 약한 수류(0.5m/sec)와 좁은강(~60m)에서 보병과 기병 구분대 및 마필 도하에 지정되며, 동시에 1개 보병(기병)중대가 도하한다.

및 적에 대한 정찰은 부대들이 강으로 접근하기 이전에 모든 전선에 걸쳐 진행되며, 지도 및 항공사진 그리고 간첩 및 유격기관, 지방인(민간인) 신문자료를 활용한다.<sup>20)</sup> 정찰은 군단장 및 사단장의 지휘결심을 위한 지휘정찰과 전투정찰, 그리고 기술(공병), 포병, 전차, 화학, 통신 등에 의한 특수정찰로 구성된다.<sup>21)</sup> 사단 지휘정찰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사단 강행도하시 지휘정찰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단(연대)용으로 지정된 도하지역 자기강안에서 그 지역에 속하는 대의 지형 (일반적 성격, 강으로 접근할 은폐지점, 감시조건, 자기강안에서의 사격진행)</li> <li>• 예비적으로 지정한 도하점</li> <li>• 대안에서 지형과 적 방어의 일반적 성격 및 그의 전연</li> <li>• 대안에서 제21제대가 점령하기에 지정한 계선</li> <li>• 포병진지지구</li> <li>• 대기지구와 출발지구 및 그곳으로부터 도하점으로의 전진로</li> <li>• 출발안과 대안에 있어서 지휘 및 감시소들의 전개 지점</li> <li>※ 전투정찰 : 적 방어 전연, 적의 방어축성물 성격, 지장점, 장애물 성격, 화력진지 지구와 포병집단, 전차의 현존 및 그의 집단 해안에서 화점의 위치, 전술적 예비대 배치지 등</li> </ul>
---

※ 출처 : 『강행도하』, p.26.

도하지역과 도하지점을 선택하고 이에 대한 정찰(지휘정찰, 전투정찰, 특수정찰) 이후에 도하계획을 작성하게 된다. 도하계획 작성의 기본 문건은 바로 도하계획 일람표와 그에 첨부되는 도하지역 약도이다.<sup>22)</sup> 도하계획 일람표는 군단~연대까지 작성하며, 대대에서는 도하문건을 작성하지 않는다. 사단 도하계획 일람표에 대한 예는 <표 4>와 같다.

20) 상계서, pp.21~22.

21) 상계서, pp.23~30.

22) 상계서, p.31.

〈표 4〉 사단 도하계획 일람표

제80보사의 구멘니끼 굴 구루이지여에서의 빠른 강도하계획 일람표												
5월 27일 지도 1:10000												
지 구		도 하 점			도하점을 설비하기에 부여된 도하 기재기		도하를 보장 하는 기술 부대	각 항행별로 도하하는 부대의 성원	도하 기한		전투보장대책	비고
					실 지	예비			시작	완료		
대기 지구/ 그를 차지할 기한	출발 지구/ 제대가 그를 차지할 기한	No. 위치 도하점의 경비사령	도하 종류와 방법	준비 완료 시간	실 지	예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00의 서북 1km의 소립 5.26 5시	000의 정원 5.26 23시	No1. 00의 0.5km 서남 무명고지 기술 2중대 1소대장 중위 모모	노로써 상륙 도하	5.27 H시			기술 2중대의 1, 2 소대	제1항행 : 보병1중대 제1기관총중대 제2항행 : 보병2중대, 제1대대의 반전차 총소대, 보연의 공병1분대 제3항행 : 제1기관총 중대의 제3소대, 제1대대의 45mm포 제4항행 : 제3보병중대중의 1소대	시	시+2	제101 독립차 연대의 제1중대가 008라리진지에서 제2연포 2대대의 항공방어는 군단기재로서	제1 제대의 도하
								제5항행 : 보병7중대 제3기관총중대의 2소대 제6항행 : 보병8중대, 3대대의 반전총소대, 보연의 공병2분대 제7항행 : 보연의 반전차포 1, 2, 기타	시+2	시+4		제2 제대의 도하
		No3. 00지구 제13 기술 중대장 중위 모모	밧줄 로써 도선판 도하	시+0.5	도선 판	합 주	제1-3항행 : 제101 독립전차연대의 2중대 제27보연의 제16반 전차포대대 제4-5항행 : 제3대대의 박격포중대, 연대포 제6-7항행 : 보연의 박격포중, 제27보연의 1대대, 기타	시+ 0.5	시+2	상 동	제1 제대의 도하	제2 제대의 도하
	화력 진지에서	No2. 군단 도하점 제5합주 대대 1중대장 중위 모모	교량 로써	시+4	교 량		제5 합주 대대의 중대	제101 독립전차연대 제27포연의 1대대 제27포연의 2대대, 기타	시+4 시+4.5 시+4.0	시+4.5 시+4.5 시+4.0		

신호 : 협동동작신호 일람표에 의함  
제80보연참모장 소좌 모모  
제80보연의공병장 대위 모모

※ 출처 : 『강행도하』, 부록 #12

도하계획 일람표에서 알 수 있듯이 보병부대의 경우는 “시”시간에 상륙도 하하고, 중장비 부대는 “시”시간 이후 도선판으로 도하하며, 사단 주력부대는 제1, 2제대가 도하 완료되는 4시간 이후에 교량을 통해 도하하며, 도하 완료시간은 지형 및 부대 속성 등에 따라 다르겠지만, 각 사단별 약 4.5~6.3시간이 소요됨을 알 수 있다.<sup>23)</sup>

강행도하시 전투보장은 각종 화력 지원과 반전차 방어, 허위도하, 연막 등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다.<sup>24)</sup> 특히 전투보장대책 중에서 포병 및 항공기의 화력지원은 특별한 의의를 지닌다.<sup>25)</sup> 강행도하시에는 포병, 박격포, 항공기 화력으로 적 방어를 압도한 후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sup>26)</sup> 포병 및 항공기의 지원은 반드시 주력이 대안에 도하를 완성할 때까지, 또 대안에서 전투임무를 수행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sup>27)</sup> 계획적 강행도하는 주간과 저녁에는 포병사격과 항공대 폭격과 함께 진행하거나, 야간 암흑에는 포병사격과 항공대 폭격 없이 혹은 포병사격과 항공대 폭격의 지원하에 진행된다. 또한 직접 강행도하시에도 각종 화력 및 항공대의 철저한 엄호하에 진행된다. 도하계획 일람표를 통해 전차와 포병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화력지원하고, 동시에 군단에서의 항공방어로 전투를 보장함을 알 수 있다.<sup>28)</sup> 화력지원 외에도 반전차 방어를 위해 제1제대에 전차와 자동포, 포와 반전차포 그리고 공병과 반전차 지뢰를 편성하여 교두보에서 적의 전차 돌격에 대응한다. 그리고 시위행동과 허위도하점 설비는 강행도하의 성공여부를 달성하는 것으로 적의 주의를 주공방향에서의 군대 도하로부터 이탈시켜 시위도하 지점으로 적의 예비대를 끌어 들이게 할 목적으로 실시한다.<sup>29)</sup> 또

23) 상계서, 부록11 제27보사는 6.3시간이, 부록12 제80보사는 4.5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두 사단의 도하계획 일람표를 비교해 보면 전차, 포병 등의 교량 도하 시간에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24) 상계서, pp.51~54.

25)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p.158.

26)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강행도하』, p.8.

27)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p.158.

28)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강행도하』, 부록11 제27보사 도하계획 일람표 - “전투보장대책”과 “비교” 참조.

29) 상계서, p.4.

한 연막은 적으로 하여금 도하지점 위치를 오해케 하거나, 도하기재 집결을 위장하며, 적의 감시 및 조준사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도로교량작업을 위장하고 적 항공대로부터 보호받기 위하여 실시한다. 강행도하시 전투보장은 강행도하의 성공요건 중의 하나이며, 제병과 통합을 위한 노력이기도 하다.

## (2) 도하형태와 도하방법

도하형태에는 상륙도하, 도선판도하, 교량도하, 여덥도하, 수영도하, 빙상도하가 있다. 사단의 주 도하형태는 상륙도하, 도선판도하, 교량도하이며, 여덥도하와 수영도하는 정찰 및 전위대가 사용하며, 빙상도하는 특수형태 도하이다.

상륙도하는 단정 및 종속재료로 떼(뗏목) 및 주교 등을 사용하여, 전투원과 중기관총, 박격포, 독립포 등 경장비를 도하한다. 보통 공격단정 및 뗏목으로 전위대가 도하하며, 제1제대는 환과 주교로 도하한다. 통상 제1제대 제1항행부는 중기관총소대, 45M포, 연대포 및 반전차총으로 증강된 보병중대와 전방포병관측병, 통신기재 휴대한 통신방향책임자, 지뢰탐지기와 반전차 지뢰를 소유한 공병으로 구성한다. 또한 도하 이후 120~180m 넓이의 강에서는 상륙도하점에 도선판도하와 교량도하를 조직한다.<sup>30)</sup>

도선판도하는 환, 합주선 등에 배들로 상판을 설치하여, 주로 탄약, 전차, 장갑차 등 중장비가 도하한다. 따라서 도선판도하는 제1제대 성원 중 가장 무거운 화물과 주력 중에서 반드시 교량 가설 전에 도하할 것과 교량의 활하중을 초과하는 화물 등이 도하한다.

교량도하는 경주교 및 합주와 종속재료로 설치되는 별교(筏橋, 뗏목다리)를 사용하며, 보교(步橋, 통상 유속 1m/sec, 폭 120~180m인 강에 설치)는 수 분내에 설치하지만, 그 외 교량 설치에 수 시간이 걸린다.<sup>31)</sup> 교량도하는 군단 제1제대 사단의 주력, 기계화 부대와 탱크 부대, 군단 부대, 후

30) 상계서, pp.60~62.

31) 상계서, p.41.

방부대 등이 도하하며, 사단의 보병부대와 구분대 및 주력들은 보교로 도하하게 된다. 교량가설은 표준적으로 제1제대가 적의 기관총 및 포병화력으로 부터 교량가설지점을 보장하는 계선을 점령한 다음 야음을 이용하여 가설하고,<sup>32)</sup> 적 항공대의 습격시 교량을 분해하고 교량도하점을 도선판도하점으로 조직하여 사용하며, 교량이 적의 화력으로 심하게 사격될 시에는 예비 도하지점으로 이전한다. 하지만 교량의 설치와 분해는 적 및 지형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데, 8월 공세시에는 교범에 입각하여 일정 계선을 점령한 이후 수중교를 가설하였지만, 9월 공세시에는 사전 수중교 혹은 야간에 설치하고 주간에 해체하는 부교를 건설하였다.

여덥도하는 좁은강(폭 60m 이내)에 있어서 군대와 그의 전투기술들의 도하 기본방법이다. 여덥은 교량도하점과 유사하게 설비되는 도하점을 형성하며, 여덥에 대한 설비는 강행도하 전에 진행하거나, 전위대 대안 점령 후 시행한다. 장애물을 제거하고, 밧줄 혹은 표로 여덥을 표시하고, 여덥 바닥은 돌 흙가마니 및 짚뭉은 것으로 메우며, 입구와 출구를 설치한다.<sup>33)</sup> 수영도하는 물결이 약하고 좁은강에서 사용하여 전위대와 제1제대가 도하한다. 수영도하점은 상륙도하점과 유사하게 구성하며, 여러 가지 부유기재(판대기, 원목, 외투-천막, 짚주머니 등)를 활용한다.<sup>34)</sup> 여기에서 여덥도하점과 교량도하점이 유사하게 설비됨은 정찰 및 전위대 도하 이후, 차후 주력이 교량도하점(별교, 주교 등)으로 도하하며, 수영도하점과 상륙도하점이 유사함은 전위대에 의한 수영 도하 이후 보병 주력이 상륙 도하하는 지점(혹은 보교에 의한 교량도하)으로 운용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 (3) 직접 강행도하와 기계화부대 강행도하

직접 강행도하는 “적이 방어를 차지하여 조직하는데 성공하지 못하였거나, 적이 미리 준비한 방어를 갖고 있지 않거나 이를 조직하는데 성공하지

32)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p.159.

33) 민족보위성 군사출판부, 『강행도하』, pp.76~79.

34) 상계서, pp.79~82.

못하였을 대에 있어서 적을 추격할 때” 가능한 도하방법이다.<sup>35)</sup> 계획적 강행도하는 집단군사령관 혹은 사단장이 조직하지만, 직접 강행도하는 사단(여단)장이 조직하며, 성공요소는 도하 부대들의 대안으로의 도하과정에서 압도적이고도 맹렬한 행동으로 결정된다. 직접 강행도하는 전위대만 수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포로서 증강되고 항공대로 지원되는 전차와 기계화부대들로 수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직접 강행도하에서 포병과 항공대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직접 강행도하는 계획적 강행도하와는 다르게 지휘정찰을 짧게 조직하며, 도하계획 일람표를 작성하지 않고, 모든 강행도하 지시는 부분적 전투명령 및 전투지령으로 하달한다. 직접 강행도하에서 결정적 의의는 주공방향 도하를 항공대의 공중에서 위력적인 타격에 보장하는 것이다. 전위대의 도하는 여습도하, 수영도하, 탈취한 교량도하 등 모든 가능한 방법으로 넓은 전선에서 집행하며, 신속한 도하를 위해 지방 자료와 종속자료를 능숙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주력의 도하는 전진과정에서 탈취한 도하점 및 전위부대 설비한 도하점에서 진행한다. 주력에 배속된 기술부대와 도하기재들도 동시에 앞으로 나가면서 도선판도하지점과 교량도하지점을 설비한다.<sup>36)</sup>

기계화부대(전차연합부대와 기계화연합부대)의 강행도하의 특성은 그들 무장성격과 임무의 성격, 행동방법 그리고 전투적 가능성들에서 나온다. 이런 특징 때문에 하중을 위한 도선판도하점과 교량도하점 설비를 위한 도하기재가 요구되고, 넓은 전선에서 신속하고 동시적인 도하 조직이 요구되며, 대안을 먼저 증강된 보병으로 점령하여야 하고, 도로에 대한 준비와 지형 상태 및 상륙지점 지뢰 제거 등이 요구된다. 기계화부대는 단독 혹은 일반 부대와 같이 도하할 수 있으며, 보병사단과 함께 도하시에는 보병사단이 도하한 다음 그 지역에서 넓은 전선으로 도하를 한다. 자립적(단독) 강행도하는 개활지, 적의 중심, 추격 시에 있게 된다. 이 경우 항공륙전대와 협동 동작이 커다란 의의를 가지며, 표준적으로 1개 이상의 중합주교가 필요하다.

35) 상계서, p.6, 94.

36) 상계서, pp.99~101.

강행도하 전에 약한 지점을 판정하여 도하하고, 이후 연속적인 진출과 함께 익측과 후방에서 타격해야 한다. 도하지역 할당 시에는 바닥이 좋은 여덟과 경사가 완만한 강안을 가진 지역을 부여받으며, 대안에 도하한 다음에는 전차들을 위장하고 적으로의 접근이 유리하고, 적의 포와 항공화력으로 보호되는 집합지구(강안으로부터 1~2km 거리 지점)를 지정하여 집결한다.<sup>37)</sup> 이와 같이 기계화부대 도하의 성과는 정찰 및 공병, 보병, 포병, 반전차 부대의 협동동작으로 보장된다.<sup>38)</sup>

요컨대 북한군 교범 『강행도하』는 상위 교범인 『야전규정』에 입각하여 강행도하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이후, 계획적 도하에 해당하는 도하준비, 도하실시(도하와 교두보 확보)에 대한 내용과 기타 특수조건에 따른 강행도하를 다루고 있다. 도하준비과정에서는 어떤 도하지역과 도하점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며, 정찰(지휘정찰, 전투정찰, 특수정찰)을 통해 확정하게 된다. 또한 도하 실시에 있어서는 다양한 전투보장대책(화력지원, 대공방어, 허위도하, 반전차, 연막 운용 등)이 성공의 요건이 된다. 직접 강행도하는 항공기와 포병의 화력지원 하에 신속하게 넓은 전선에 걸쳐 가용한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도하하며, 기계화부대 도하는 정찰 및 공병, 보병, 포병, 반전차 부대의 협동동작하여 여덟도하, 도선판도하 그리고 교량도하를 통해 도하한다.

### 3. 영산전투시 북한군 도하작전

낙동강 방어선은 낙동강을 연하여 설정된 방어선으로 8군사령관이 지정한 최후방어선이라는 의미에서 “워커 라인(Walker Line)”이라고도 불리어

37) 상계서, pp.114~119.

38)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장갑땅크 및 기계화부대 전투규정』 제2부-대대,련대,려단(1949년도판), p.461.

졌으며, “낙동강 교두보” 또는 “부산 교두보”라고 불리어진다. 낙동강 방어선에서 낙동강은 남지에서 왜관을 거쳐 낙정리로 이어지는데, 강폭은 400~800m, 수폭은 200~400m, 수심은 1~1.5m이다.<sup>39)</sup> 낙동강은 천연적 장애물이기 때문에 국군과 유엔군은 강을 따라 구축된 방어선으로 북한군의 공세를 저지하고자 하였고, 북한군은 낙동강에 대한 강행도하 이후 추격으로 부산까지 진격하고자 하였다.<sup>40)</sup> 낙동강 방어선에 대한 북한군의 공세는 8월 공세와 9월 공세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8월 공세는 북한군 작전계획에서 추격의 일환이었지만, 9월 공세는 지연에서 방어로 전환된 국군과 유엔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협조된 공격으로 진행되었다.<sup>41)</sup> 따라서 낙동강 돌출부에 해당하는 영산전투 역시 추격간 도하작전인 직접 강행도하와 협조된 공격간 도하작전인 계획적 강행도하를 살펴볼 수 있다.

### (1) 8월 공세시 영산전투와 직접 강행도하

창녕과 영산지역은 낙동강이 서쪽으로 크게 도출되어 굴곡이 심한 S자 모양으로 흐르고 있어 “낙동강 돌출부”라고 불리어졌다. 이 지역은 낙동강 서쪽에서 대구에서 부산에 이르는 교통의 요지인 밀양으로 진출하기 용이한 접근로를 지닌 지역이므로, 북한은 영산에서 대구 후방을 위협하거나 밀양으로 진출하여 대구-부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자 하였다. 8월 공세시 영산전투는 미 제24사단과 증원부대가 영산지역에서 북한군 제4사단의 공격을 격퇴한 전투이다. 당시 미 제24사단은 함천 일대 집결해 있던 북한군 주력이 창녕으로 집중할 것으로 판단했으나, 북한군 제4사단은 8월 5일 자정 무렵에 주력을 창녕이 아닌 영산 정면 오항 나루터에서 도하 공격하였다.

39) 윤창일, 『한민족전쟁사』 (서울: 집문당, 2007), pp.651~655.

40) 추격(pursuit) 작전이란 도주하는 적 부대를 격멸하여 결정적인 승리로 전투를 종결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격작전으로서 통상 전과확대에 이어서 실시하며 추격의 목적은 방어능력을 상실하고 도주를 시도하는 적 부대를 직접 압박하고 퇴로를 차단하여 협격함으로써 적 주력을 격멸하는 데 있음. 육군본부, 『군사용어사전』 (1999), p.601.

41) 김광수, 「한국전쟁 전반기 북한의 전쟁수행 연구」, p.205 주 137 참조(북한군은 8월 20일까지 ‘추격’작전의 연속으로 간주하였음).

이후 교두보인 네잎 클로버 고지(Cloverleaf Ridge, 165고지)와 오봉리 능선까지 진출하여 영산 주보급로를 강제하고, 영산 방향으로 진출시켜 영산 일대에 포격하였다. 이와 같은 영산의 위기는 유엔군이 마산에서 밀양으로 올라오던 제1임시해병여단과 제24사단의 역습으로 북한군을 비로소 낙동강 돌출부에서 몰아냄으로써 해소되었다.<sup>42)</sup> 낙동강이라는 천연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이 약한(전투력 수준은 약 30%로 병력은 1,500명, 12문의 포를 가지고 있었음)<sup>43)</sup> 북한군 제4사단이 도하작전에 성공하여 교두보까지 확보하였던 것이다.

직접 강행도하도 일련의 순서에 의해 진행되므로 그 순서에 입각하여 어떻게 도하하였는지 살펴보면, 자료가 제한되는 부분은 다른 직접 강행도하에 나타난 도하의 모습이나 교리에 입각하였을 때의 상황을 고려 추정해나가고자 한다. 먼저 직접 강행도하는 사단장이 조직하므로, 당시 제4사단장이 조직하였을 것이다. 또한 직접 강행도하의 성공요소가 압도적이고도 맹렬한 행동으로 도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군이 방어하기 이전에 대담한 도하 작전을 구사하여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런 사단장의 복안 아래 정찰, 전위대 및 제1제대 도하, 제2, 3제대 도하, 그리고 교두보 확보 과정으로 이어졌을 것이다.

먼저 정찰이다. 직접 강행도하는 지휘정찰을 짧게 조직하므로 생략하거나 짧게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한 지도 및 항공사진 그리고 간첩, 유격기관, 지방인 신문자료를 활용하였을 것이다. 특히 북한군은 유엔군 작전지역에서 편의대를 활발하게 운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유엔군의 혼란이 가중되기도 하였다. 단적인 예로 영산전투시 마산에 있는 군 예비인 미 제27연대 2대대를 제24사단장에게 배속시켜 남지교를 탈환토록 하였는데, 대대가 남지교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 피난민의 달구지가 전복되어 소총 12정과 탄약이 달구지에 쏟아져 나왔다. 이는 북한군 12명이 피난민으로 가장하여 잠입하려고 했던 것이다.<sup>44)</sup>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북한군은 피난민으로 가장하

42) 자세한 전투 경과는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pp.668~673.

43)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전계서, p.150.

44) 상계서, pp.165~166.

여 방어 전연과 장애물, 포병과 전차의 위치를 확인하는 '전투정찰'을 진행하였던 것이다. 특히 공주전투에서 북한군 제4사단 16연대가 공주 정면이 아닌 측방 삼교리 일대에서 도하하여 포병진지를 공격하였는데, 영산전투에서도 제16연대가 오항 나루터 도하 이후 포병진지를 위협하였다. 이는 후속제대가 도하할 수 있도록 포병화력을 제압하기 위하여 사전 '전투정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제24사단장도 이를 고려하여 강 동쪽 5마일 이내 민간인은 모두 피난할 것을 명령하였다.

도하작전에서 도하지역의 선택은 작전의 승패를 결정짓는 주요한 결심 사항이다. 먼저 미 제24사단장 처치 소장(John H. Church)은 지형을 분석한 결과 북한군은 8월 하순경 주공을 창녕 정면으로 지향하여 공격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이는 처치 소장의 다음 언급에 잘 나타난다.

북한군의 주공 방향은 창녕 정면이 될 것이다. 창녕 정면에는 도섭이 가능한 지점이 많고, 지형도 공격에는 유리하나 방어에는 도로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갑부대에 의한 역습이나 증원이 제한된다. 따라서 북한군은 아군의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창녕 정면으로 공격할 것이다. (중간생략) 적은 우리 측의 방어태세가 완전하게 이루어지기 전에 이 기회를 이용하여 빨리 공격을 하려고 하겠지만, 도하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빠리는 못할 것이다. 적은 8월 하순 말 이후에나 주공을 창녕 방면으로 지향하여 공격해 올 것이다.<sup>45)</sup>

하지만 처치 소장의 판단과는 다르게 북한군 제4사단장 이건무(李健武, 중공군 팔로군과 제2차 대전시 소련군 중위로 복무함)는 창녕과 영산 중에서 영산을 도하지역으로 선택하였고, 시기에 있어서도 신속하게 직접 강행도하로 이어졌다. 그렇다면 영산을 도하지역으로 선택한 배경은 무엇일까? 이건무는 처치 소장이 판단한 방어의 취약점보다는 강행도하에 유리하고 편리한 도하지역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강행도하』 교범에서 보인 바와 같이 공격

45) 상계서, pp.146~147.

측에게 만곡과 돌기가 있어서, 적에 대한 익측사와 교차사격진행이 가능한 돌출부가 바로 영산지역이었다. 또한 6개소의 도섭가능지역(오항, 부곡, 박진 등)은 여울을 가진 지역이며, 이런 여울 지역은 교량도하점과도 유사하게 설비될 수 있으므로 장비 도하도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다음은 전위대와 제1제대의 도하이다. 8월 6일 0시, 낙동강에 적색과 황색 신호탄이 오르자 북한군 제16연대의 주력은 부곡리 나루터에서, 일부병력은 오항 나루터에서 은밀히 도하를 개시했다. 부곡리 나루터에서 도하한 병력은 강을 은밀히 도하했으나, 강변에 오른 이후에는 지뢰지대 봉착과 포병 그리고 12.5밀리 중기관총의 집중사격으로 격퇴당하였다. 하지만 오항에서는 미 제34연대 1중대가 나루터 감시 위치가 아닌 고지로 배치되어 있어, 은밀하게 북한군 제16연대 3대대 약 800여명이 도하할 수 있었다.<sup>46)</sup> 전위대 및 제1제대의 도하는 여둑도하, 수영도하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넓은 전선에서 집행하므로, 여둑 도하점인 부곡리와 오항 일대에서 동시에 도하하였고, 오항에서 도하지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혹은 오항에서 제1제대를 박진과 기항에서 제2, 3제대를 도하하기 위해 부곡리에서 허위 도하하였던 것일 수도 있다. 이후 제16연대는 6일부터 7일 사이에 연대 제2제대인 2개 대대 규모가 오항 일대로 야간도하하여 병력을 증가시켰으며, 오항 일대 도하를 보장하기 위하여 박진나루터와 부곡리에서는 허위 도하하였다. 이런 허위 도하 때문에 미군은 야포와 항공기의 집중사격으로 박진나루터와 부곡리에서 북한군의 도하를 저지하였다고 판단하였을 것이다.<sup>47)</sup> 하지만 연대 주력은 오항 일대로 도하하였던 것이다.

제1제대 도하에서 특징적인 모습은 '은밀 도하'라는 점이다. 강행도하시 전투보장책 중 하나는 각종 화력의 지원이다. 계획적 강행도하와 마찬가지로 직접 강행도하시에도 각종 화력 및 항공대의 철저한 엄호하에 도하가 진행된다. 실제로 금강도하작전은 각종 화력 지원하에 이루어졌다. 예를 들

46) 상계서, pp.151~152.

47) Roy E. Appleman, *United States Army in the Korean War : South to the Naktong, North to the Yalu*, pp.293~29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제5권 낙동강 전 방어작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253에서 재인용.

어 제4사단 금강 도하시 7월 14일 오후 5시 30분에 포병공격준비사격이 선행되었고, 제3사단은 금강 도하시 7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포병과 박격포 지원하에 도하를 개시하였고, 저녁 8시 30분 도하시에도 전차, 자주포, 대전차포, 직사포 등 공격준비사격이 선행되었다.<sup>48)</sup> 또한 북한군 야크(YAK) 전투기 1대가 16일 03시경 금강 상공에 조명탄을 투하하고 포병공격준비사격이 이루어진 이후에 보병들이 작은 배와 뗏목을 이용하거나 도섭과 수영으로 도하하였다.<sup>49)</sup> 그런데 8월 공세시 영산전투에서 북한군 제4사단은 항공기, 연막, 그리고 각종 화력지원의 전투보장 대책 없이 은밀 도하하였던 것이다. 그 이유로는 첫째, 탄약을 많이 확보하여 우세한 화력을 발휘하기 보다는 공격 기세를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명령 때문이었다.<sup>50)</sup> 둘째, 미군을 압도할 항공기와 포병화력이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를 노출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즉 야간 암흑에는 포병사격과 항공대 폭격 없이 도하가 진행되는데, 이를 통해 기습을 달성하고자 하였던 것이다.

도하형태는 개인용 신변 도하 기재를 활용한 수영도하와 도섭에 의한 여덥(여울)도하, 그리고 뗏목을 이용하는 상륙도하 등 다양한 형태의 도하방법을 적용하였다. 북한군의 도하 모습에 대해 “북한군은 총과 옷은 머리 위에 이고, 장비나 경화기는 뗏목에 싣고 어깨까지 빠지는 촛류(燭流)속에서 도하를 했다”고 하였다.<sup>51)</sup> 여기에서 총과 옷을 머리위에 이는 모습은 개인 천막 1개로 만드는 개인 헤엄(수영) 도하용 부낭의 모습과 흡사하다.<sup>52)</sup> 이 부낭을 물에 띄운 다음 두 손 혹은 한 손으로 부낭을 잡고 수영하는 모습

4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1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p.198~204.

49)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제2권(서울: 신일출판, 1979), p.479; Roy E. Appleman, op. cit. p.135. 이때 쏟아진 적 화력의 치열도는 연대장 Meloy 대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전선에서도 경험한 바 없는 것이었다고 술회했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 전쟁사』 제4권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작전(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8), pp.109, 203에서 재인용.

50) 일본 육전사연구보급회 편, 『한국전쟁』 제2권 부산 교두보 확보, p.151.

51) 상계서, p.152.

52) 조선인민군군사출판사, 『군사상식』, p.418.

이였을 것이다. 또한 뗏목에 의한 상륙도하를 통하여 전투원과 중기관총, 박격포와 독립포 등 경장비와 함께 전방포병관측병, 통신기재 휴대한 통신방향책임자, 지뢰탐지기와 반전차(대전차) 지뢰를 소유한 공병 등 주요 병력이 도하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수영도하, 상륙도하를 통해서 중장비를 도하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중장비는 도선관 혹은 교량으로 도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하작전은 전차를 포함한 사단의 주력이 도하하여 대안에 전개되어 교두보를 확보하였을 때 종결된다. 따라서 새로운 도하형태를 모색하게 되는데 그 도하형태가 바로 수중교에 의한 교량도하였다.

사단 제2제대와 주력의 도하는 '수중교(가교, 假橋)'라는 교량도하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한군은 기항과 박진 나루터에 가교(수중교) 가설 작업을 하여 10일 밤에는 이를 완성하였다. 이 가교로 트럭과 중박격포 및 약 12문의 야포를 낙동강 동쪽으로 이동시켰다. 또한 보병부대와 수대의 전차도 도하하여 첫 도하이후 5일 만에 중화기 및 장비를 도하시킬 수 있었다. 이 가교는 수면에서 1피트 가량의 깊이까지 물속으로 모래주머니, 채목 및 바위를 쌓아 올린 것으로 교량이기보다는 얇은 도섭장에 가까웠다. 이와 비슷한 가교들이 제2차 세계대전 중 소련군에 의하여 많이 건설되고 이용되었으며, 특히 스탈린그라드 격전에서 이 가교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sup>53)</sup> 가교 건설로 인해 8월 11일 북한군 제4사단은 클로버 고지와 오봉리 능선 진지에 야포를 배치하여 교두보를 확보하여 영산 시내까지 공격할 수 있었다. 『강행도하』 교범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북한군은 중장비 도하가 어렵게 됨에 따라 당시 소련고문관의 지도하에 8월 공세시 가교를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강행도하 교리에 의하면, 사단은 제1제대 도하 이후 약 4~6시간 이후 모든 제대가 도하해야 한다. 특히 공격기세를 유지하는 추격작전에 있어서

53)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육군본부, 2001), p.225. 이에 대해 러시아 국방부는 1950년 낙동강 도하시 8m 폭과 2.5m 높이의 제방을 만들었는데, 이런 제방설비는 돌과 모래로 채워진 5~7만장의 가마니가 소요되었고, 6~7일 동안 1,000여명이 인원이 수작업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았다. 러 국방부 편, 김종국 역, 『러시아가 본 한국 전쟁』 (서울: 오비기획, 2002), p.370.

는 더 빠르게 도하 및 교두보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기계화부대와 중장비는 그 특성상 도선판도하점과 교량도하점이 설비된 이후에 도하할 수 있다. 금강 및 낙동강 일대의 교량이 파괴됨에 따라 북한군은 배와 뗏목에 의한 도선판도하 혹은 파괴된 교량을 보수하여 도하할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직접 강행도하의 관건은 화력지원에 의한 전투보장이다. 특히 항공대 화력과 포병 화력의 집중은 필요불가불의 요소이다. 하지만 추격작전이 진행되어 갈수록 북한군은 제공권을 상실하고, 포병 화력의 우위도 점차 상실하게 된다. 이런 상태에서 북한군은 공격기세를 유지하기 위하여 은밀 도하로 제1제대를 도하하고, 항공기 폭격의 관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수중교를 가설하여 중장비를 도하시킬 수 있었다. 비록 수중교로 중장비가 도하하여 사단 주력이 도하 및 교두보 확보에 성공하였지만, 수중교 가설에 필요한 5일의 시간은 기습의 효과를 감소시켰고, 미 예비대(제1해병임시여단)의 역습으로 교두보를 유지할 수 없게 되어 북한군 제4사단의 강행도하는 실패로 끝이 났다.

## (2) 9월 공세시 영산전투와 계획적 강행도하

8월 20일 이후 북한군은 추격작전을 종료하고, 새로운 공격전투를 준비하게 된다. 8월 20일까지 모든 전선의 북한군 공격부대는 국군과 유엔군의 강력한 저항으로 정지되었다. 계속되는 공격작전으로 포병은 40%, 탱크와 자주포는 약 50%의 손실을 입었으며, 사단 인원 및 장비는 약 30~50%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제공권 및 제해권을 상실하였다. 그럼에도 8월 20일에 북한군 지휘부는 남한을 신속히 점령한다는 목적 하에 부산 교두보에 대한 공격을 준비하고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sup>54)</sup>

9월 공세시 영산전투에서 북한군은 철저한 준비하에 협조된 공격을 진행하였다. 당시 창녕과 영산지역은 미 제2사단이 방어하고 있었는데, 8월 31일 22시부터 북한군 제2사단이 창녕, 제9사단이 영산을 공격하여 9월 3일

54) 상계서, pp.49~51.

까지 밀양과 삼랑진을 점령한다는 목표하에 공격을 감행하였다.<sup>55)</sup> 그 결과 북한군은 비록 교두보를 확장하지는 못하였지만, 제한된 제공권내에서도 치밀한 준비를 하여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다. 어떻게 북한군은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이는 사전 치밀한 준비와 계획이 계획적 강행도하의 특징임을 고려해 볼 때 북한군의 명령, 도하계획 일람표 등을 통해 도하작전 교리를 분석하여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사전 도하기재 준비를 위한 명령은 8월 24일 제9사단장(박효삼)이 연대에 하달하였다. 당시 제1연대에 하달된 도하 준비명령은 아래 표와 같다. 이를 연대 도하계획 일람표와 같이 분석해보면 공병 1개 중대를 제1연대에 배속하고 동시에 뗏목(뗏목) 5개를 준비하도록 하였는데, 그 이유는 120M, 76M, 45M, 고사기관총 등 주요 장비에 대해 뗏목을 이용하여 정공 나루에서 도하하기 위함이었다.

제1연대장 동지 앞	명 령	
제315부대 참모부		극비 No.
도하기재준비에 관하여		
1950. 8. 24.	에서	
전선사령관동지의 명령이오니 금번 낙동강 도하용 기재를 아래와 같이 준비할 것을 명령한다.		
-----기-----		
1. 도하용 준비 기재		
ㄱ. 도람강(드럼통) 100개		
ㄴ. 전주            100본(부근에 있는 전주로 하되 전선까지)		
ㄷ. 이 자료로써 뗏목 5개 만들 것		
2. 시일		
1950. 8. 25. 18시까지		
3. 이상 기재를 준비하기 위하여 공병 1개 중대를 배속하오니 시급히 공병대대에서 인원을 접수할 것.		
제315부대 부대장 박효삼		

55) 온창일, 『한민족전쟁사』, p.695.

연대장 비준														
제1보병연 낙동강 도하계획 일람표														
1950. 8. 26														
막곡리에서 지도 1:50000 49년도판														
보연의 도하 지역 및 도하 지역 장관	지구		도하점				도하점을 선택하기에 부여된 도하기재기		도하를 보장하는 기술부대	도하하는 부대 (구분대) 성원	도하 기한		전투보장대책	비고
	대기 지구/ 그를 차지할 기한	출발 지구/ 제대가 그를 차지할 기한	No. 위치 도하점의 경비사령	도하 종류와 방법	준비 원료 시간	차용 하는 것	에비	시 작			완 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박진나무 (24~43 4/L) 연대장 현준일	구산리 및철대밭 및외죽관 동합곡 (25~ 42ㄷ) (25~ 42ㄱ)	부곡합곡 (25~ 43 3/L)	No1. 부곡 (25~43 3/ㄷ) 연대 직속 공병소대장	도설 으로써 여덟도하	1950. 8.27	빗줄 200m	-	사단 직속 공병대대 제1중대 제1소대	제1보대, 정찰소대, 통신중대, 통신중대, 제1소대			제1, 2, 3대대가 도하시에 있어서 는 사단포연대 직속포로써 구 산리일대 전 지에 서 향공방어는 사단에파견된군 단고사기 제1로 연대고사용으로 써 보장한다.	(1) 제1보연장은 도하점을 확 정할 것 (2) 뱃목은 X식 동병 -3시간 안 연대공병하 장에 있는 연대포구분 대는	
부곡나무 (25~ 43 3/ㄷ) 연대장 현준일			No. 2 박진산류나무 (24~43 3/ㄷ)					사단 직속 공병대대 제1중대 제2소대	제3보대, 통신중대, 무전소대					
			No1. 지점 에서					사단 직속 공병대대 제1중대 제1소대	제2보대, 기관총 중대, 경비소대, 연대 참모부, 통신중대, 참모소대					
			No2 지점 에서						군의소, 수의소, 연대후방부, 참모부 제2제대					
정공나무 (26~45 4/ㄷ) 포병부 연대장	임조동 (27~ 47/ㄱ)	전일리 (26~ 43/ㄷ)	No3 사단 직속 공병대대 제1중대 제3소대장	뱃목 으로써 상륙도하		뱃목 5개		사단 직속 공병대대 제1중대 제3소대	연대직속 76M중대, 120M 중대, 45M중대, 고사총소대, 대대직속 45M소대			포 병 구 분 대 의 도하는 사단포로 써 보장한다. 향 공방어는 군단에 서 사단에 배속 된 고사포로써 보장한다.	제1포연부대 장 은 도하점을 확 정한다.	
* 신호 : 협동동작신호 일람표에 의함										제317군부대 참모장 지함익 공방장 장희(?)출				

북한군은 뗏목을 이용한 도하기재 준비는 물론이고, 지상 및 공중정찰이 제한되면서 중장비 도하가 가능한 수중교(underwater bridge)도 가설하였다. 수중교의 존재에 대해 알고 있었던 미군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제거하고자 하였다. 먼저 항공정찰로 미 제2사단과 제25사단 지역에서는 수중교 3개를 식별하였고 이에 따른 폭격을 하였다.<sup>56)</sup> 하지만 미군도 북한군이 야간에 이를 다시 건설함을 알고 있었고 모든 다리를 폭격할 수도 없었다. 또한 8월 27일경 미 제38연대는 북한군이 뗏목과 바지선을 이용하여 부교를 만드는 모습을 관측하고 박격포와 포병으로 이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좀 더 확실한 파괴를 위해 38연대 K중대 4명의 특임대는 각 가솔린을 가득채운 1개의 드럼통과 중화기, 소총으로 무장하여 침투하였다. 이들은 북한군이 설치한 뗏목들에 가솔린을 흠뻑 적신 이후 불을 내어 북한군의 부교를 확실하게 파괴시킨 이후 우군의 박격포, 포병과 항공기 화력 지원속에 복귀하였다.<sup>57)</sup>

제1연대 도하계획 일람표는 『강행도하』 부록의 사단 도하계획 일람표와 동일하게 작성되었다.<sup>58)</sup> 이 표에는 도하시간과 도하제대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제1연대 낙동강 도하 계산과 제1연대 전투계획 일람표에 의하면,<sup>59)</sup> 제1제대는 제1대대, 공병 제2중대 제1소대, 정찰소대, 통신전화소대로 1시간 이내 도하를 완료하고, 제2제대는 제3대대, 통신중대, 무전소대로 1~2시간에 도하하고, 제3제대는 제2대대, 자동총중대, 경비소대, 연대 통신중대, 참모소대로 2~3시간에 도하하며, 모두 여덟도하하고 이후 교두보를 확보하여 이후 제대의 도하를 엄호하도록 되어있다. 이후 후방제대는 군의소, 수의소, 후방부성원, 참모부 제2제대로 3~4시간에 도하하며, 제4제대는 120M 중대, 76M 중대, 45M 소대, 고사기관총소대 등은 유엔군 방어체계의 포병진지, 화력지원진지와 지휘소 등을 압도한 이후 뗏목 5개로 3~6시간

56) Edwin P. Hoyt, *The Pusan Perimeter* (New York: Stein and Pay, 1984), p.235.

57) Uzal W. Ent, *Fighting On the Brink: Defense of the Pusan Perimeter* (Kentucky: Turner Publishing Company, 1996), p.283.

58) 제1보병연대 낙동강 도하계획 일람표 참조.

59) 제1보병연대 낙동강 도하 계산 명령 참조. : 제1보병연대의 전투계획 일람표 참조.

경에 도선관 도하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즉 보병은 박진나루와 부곡나루에서 여습도하하고, 주요 장비는 별도의 장소(정공 나루)에서 뗏목을 이용하여 도하하며, 연대의 도하완료 시간은 약 6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위한 전투보장은 포병의 화력지원과 군단과 연대의 항공 방어를 통해 달성하고자 함을 알 수 있다.

포병의 화력지원, 공병의 도하준비, 대항공책 및 반전차대책(대전차 방어)을 통한 도하작전 전투보장의 내용은 사단의 명령문을 통해서 그 내용이 확인된다. 북한군 제2사단장 최현의 50년 8월 22일 전투명령에 의하면,<sup>60)</sup> 북한군 제2사단은 상적포와 조항 구역에서 낙동강을 야간 강행도하하여 창령과 평지리의 UN군을 완전히 포위소멸하기 위해 제6, 17, 4연대를 1선 병렬공격하여 낙동강을 도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포병은 포병준비기에 연대내 45M~75M 포로 전연의 화점과 화력기재를, 82M~120M 박격포로 참호내 유생역량과 화점을 진압하고, 사단포는 중심에서 유생역량과 지휘소, 화력 집결구역 등을 진압하도록 하였다.<sup>61)</sup> 그리고 사단 공병은 도하 장비를 8월 24일 24시까지 연대에 할당하며, 도하조직 및 강행을 계획적으로 보장하도록 하였다. 연대 고사기관총은 대항공대책을 하며, 대대내 중기중대 3소대를 항공직일소대로 편성하여 유엔군의 항공기에 대응하고자 하였다. 또한 반전차대책은 사단 반전차기동예비와 반전차구축대가 담당하는데, 공병대대 교도중대로 이동장애물대를 조직하여 유엔군의 보병과 전차의 반돌격을 저지하고자 하였다.

북한군 제9사단은 8월 31일 21시 30분부터 24시경에 수개의 장소에서 낙동강을 도하하여 미 제9연대의 방어선으로 공격하였다. 북한군의 박격포와 포병은 8월 31일 22시부터 9월 1일 새벽 1시까지 화력지원하였으며, 미군

60) 북한군 제2사단 전투명령(1950. 8. 22 08:00) 참조.

61) 북한군 제9사단 전투명령은 확인이 되지 않아 제2사단 전투명령을 통해 전투보장내용을 설명하였으며, 그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포병의 화력 지원에 대한 제2사단 전투명령의 내용과 제1보병연대의 전투계획 일람표(1950.?.?. / 막곡리에서)의 내용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즉 준비사격시에 있어서는 45M, 76M 포들로 적 전연의 화점과 화력기재를 소멸 진압하며, 82M, 120M 박격포들로써 적의 전연 참호내 유생역량과 화점을 진압할 것이라고 동일하게 명시되어 있다.

의 박격포와 포병이 사격준비가 완료될 때에는 북한군 보병의 강습으로 이어졌다. 도하 신호는 녹색 신호탄을 이용하였으며, 공격시에는 “만세”를 외치기도 하였다. 보병의 강습은 제9연대의 북단으로부터 남단으로 이어졌다. 제9연대 최북단의 G중대는 22시경 북한군은 몰밀듯이 고지를 점령하기 위해 공격하였고, G중대는 북한군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항공 화력지원과 모든 화력(M-1, 캘리버50, 수류탄 등)과 배속된 전차의 화력을 동원하였지만 북한군에 압도되었다. G중대는 9월 1일이 되어야 9연대가 철수한 상황을 알았지만 제38연대의 역습을 위해 G중대는 진지고수를 명받았다. 하지만 우측에서는 제38연대가 아닌 북한군 부대가 이동중이었고, 전날 대부분을 탄약을 소비하였기 때문에 전차의 엄호하에 차량을 이용하여 철수하였다.<sup>62)</sup>

한편 제9연대의 남단이었던 기항 나루에서도 북한군의 도하작전이 시작되었다. 기항 나루에는 미 제9연대 A중대가 94고지의 긴 능선에 있었고, 고지 하단 아곡동 부락에는 미 제72전차대대 A중대의 전차 2대, 미 제82고사포대대 D중대 0.4인치 쌍신포 1대와 0.5인치 기관총을 장비한 M16 1대와 함께 아곡동의 강을 내려다보는 신 진지로 이동하였다. 8월 31일 20시경 짙은 안개가 자욱히 끼고 있었으며, 21시경에는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이후 22시경 여름비처럼 북한군의 포병사격이 미 작전지역에 떨어졌으며, 이어서 22시 15분경에는 A중대 책임지역에 폭우처럼 북한의 포병화력이 떨어졌다. 이때 A중대 정면으로 북한군이 침범거리며 도하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북한군의 포병화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군은 포병과 박격포에 이에 대응하는 사격을 하였다. 이어서 22시 30분경에 끼었던 안개가 걷히면서 쿠마(Ernest R. Kouma) 상사는 거의 완성된 북한군의 다리를 식별하였다. 이에 탱크의 90밀리포와 0.5인치 기관총, 2대의 대공포를 이용하여 식별된 다리에 대한 사격을 가함에 따라 다리가 붕괴되었다.<sup>63)</sup> 하지만 다른 지점에서 북한군들이 낙동강을 건너, A중대 쪽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드

62) Uzal W. Ent, *op. cit.* pp.283~284.

63)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330.

디어 23시경 A중대 좌측방이며 전차가 있는 북방에서 예광탄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북한군이 공격하여 왔다. 이때 미 제2사단 군복을 입고서, 유창한 영어실력은 물론이고 암구호까지 숙지한 7명의 인원이 전차가 있는 부근으로 접근하였다. 쿠마 상사는 당연히 미 제2사단에 배속된 국군으로 식별하였으나, 이들 중에 3명이 갑자기 전차 위에 올라 수류탄을 투척하면서 상호 교전이 진행되었다.<sup>64)</sup> 이들은 국군으로 위장한 북한군 정찰병이었던 것이다.

9연대의 중앙지역이었던 박진나루에서도 북한군의 도하작전이 이루어졌다. B중대는 209고지를 점령하여 박진나루를 감제하고 있었으며, 8월 31일 야간에 미군은 “만주작전(Operation Manchu)”을 막 시작하려고 할 시점이었기 때문에 B중대 외에도 만주작전에 참여하는 9연대 예비의 E중대와 H중대,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중화기 부대인 D, H중대가 배치되어 있었다. 만주작전이란 8월 25일 미군의 수색정찰에 의해 발견된 북한군 사단 지휘소에 대한 공격 작전이었다. 하지만 북한군은 이 만주작전을 미리 식별한 것으로 보인다. 제9사단 지령에 의하면 8월 30일 낙동강 경비에 대한 세부적 지침, 즉 책임구역과 전투경계부대 운영, 그리고 지휘소 및 감시소 구축 등에 대한 명령을 하달하고 있다.<sup>65)</sup> 또한 만주작전의 시행을 염두에 두고 있던 전투경계와 수색정찰 부대 운영을 통해서 박진나루 일대의 중화기 부대가 배치됨을 식별하였을 것이다. 8월 31일 21시경 중화기 부대들이 B중대 남쪽에 배치된 시점에 물속에서의 소리와 망원경을 통해 북한군의 긴 줄을 보면서 북한군의 도하작전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북한군의 보병 도하지점은 바로 209고지 하단부에서 1마일 떨어진 부분으로, 만주작전을 위한 중화기 부대와 지휘소가 위치한 지점이었다. 이와 같이 북한군은 사전 정보에 의해 주요 부대를 식별하였기 때문에 중화기 부대인 D, H중대가 패퇴(敗退)하였던 것이다.<sup>66)</sup>

64) David J. Seigle, *Pusan : "Stand or Die"* (Washington, D.C.: 1stBooks Library, 2000), pp.137~138.

65) 북한군 제315군부대 지령(1950. 8. 30) 참조.

66) Edwin P. Hoyt, *op. cit.* p.242.

지 령

제315부대 참모부 막곡리에서

강안경비 강화에 대하여

1950. 8. 30. 지도 1:50,000 49년도판

이미 명령한 낙동강 경비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지령한다.

1. 제2보련은 낙동강 지류인 남강 입구부터 박진(22.44)까지의 구역을 경비할 것이며
2. 제1보련은 박진(22.44)으로부터 울산리까지를 경비할 것
3. 제2보련은 1개 대대 역량으로 구동(20.48) 유곡리 척현(22.44)에 적정에 의거하여 분대 혹은 소대성원으로 전투경계를 파하며 기타 인원들은 정황이 있으면 짧은 시간 내에 동할 수 있는 지점에 대기시킬 것
4. 제1보련은 박진(22.44), 부곡(25.44) 울산리(26.45)계선에서 전투경계를 파하여 2보련과 동일한 인원을 파할 것
5. 각 분대들에서 구분대 경비 배치 정형과 감시결과를 매일 20시와 4시에 보고할 것
6. 각 부대들에서는 전투지휘를 위한 지휘소 및 감시소를 8. 30 밤시간 중 견고하게 구축완료할 것

제315부대 참모장 태주혁  
작전과장 전주택

이어서 북한군은 박진나루를 중심으로 수중교와 부교를 건설하였으며, B중대에서는 이후 트럭과 전차가 강으로부터 영산방향으로 움직이는 소리까지 들을 수 있었다. 즉, 8월 31일 22시경에는 북한군 트럭이 도강하여 209고지 하단에 정지하였다. 북한군의 호각을 불며 소리쳤고, 이어서 트럭에서 내린 보병들이 B중대 고지를 향해 공격하기 시작하였다.<sup>67)</sup> 그날 밤 209고지의 B중대는 큰 피해를 입고 패퇴(敗退)하였다. 북한군의 기습 도하작전은 성공적이었다. 미 지휘부는 23시 55분에야 비로소 만주작전을 취소하였는데, 이때 이미 북한군은 포병화력 장비까지 도하한 상태였다. 만주작전이 취소됨에 따라 만주작전 부대였던 E중대는 다시 연대 예비로 돌아갔다. 이

67) David J. Seigle, *op. cit.* p.140.

에 지휘부에서는 9연대의 예비였던 E중대를 9월 1일 03시부터 오봉리 능선과 클로버 고지 사이의 주 통로를 봉쇄하도록 명령하였다. 하지만 북한군은 이미 전차와 자동화기 등의 중화기 부대까지 도하하여 오봉리 능선과 클로버 고지로 쇄도함에 따라 주요 방어진지인 오봉리 능선과 클로버 고지 거점을 북한군에게 탈취당하고 말았다.<sup>68)</sup> 이와 같이 북한군은 보병부대 도하와 동시에 중화기 부대까지 박진나루를 통해 도하를 성공함에 따라 도하교두보인 오봉리 능선과 클로버 고지를 9월 1일 새벽에 점령할 수 있었던 것이다. B, D, H중대의 잔여 병력이었던 Schmitt 특수부대에 의하면, 낙동강을 연하여 박진나루 도선장에는 상당수의 수중교와 철제부교를 식별할 수 있었는데, 이런 다리는 대부분 매일 분해하여 밤에 설치하는 형식이었으며, 민간인 50명으로 된 노무반에 4명의 군인이 감시하면서 밤새도록 보급품을 운반하였고, 800에서 1,000명의 노무자가 이 도선장에서 일하고 있었다고 한다.<sup>69)</sup>

제9연대 지역뿐만 아니라 제23연대 작전지역에도 북한군의 도하작전이 이루어졌다. 당시 미 제23연대는 제1대대와 제2대대로 편성되어 있었으며, 병력의 수가 부족했던 1대대는 분대 단위로 관측소를 운용하면서 강안에 배치하여 북한군의 이동을 식별하고, 2대대를 예비로 하였다. 이때 북한군 제2사단은 횃불을 들고 행진하듯이 진격하였는데, 이를 관측한 전방 포병 관측장교는 약 2,000명으로 구성된 피난민으로 생각하였다. 하지만 포병화력 폭격에 따라 어떤 횃불은 사라졌지만, 행렬이 계속됨을 보고 피난민이 아닌 북한군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서 21시부터 23시까지 북한군의 박격포와 포병 사격이 이어졌고, 23시경 녹색 신호탄을 시작으로 북한군의 공격이 이어졌다. 이에 9월 1일 연대 좌측방의 C중대는 압도되었다. 그날 밤 북한군은 사단 포병진지를 거쳐 연대본부와 근무중대 및 기타 부대들이 있는 지역까지 침투하였다. 이와 같은 전투수행으로 북한군은 북방에는 미 제38연대, 23연대, 그리고 사단포병을 그리고 남방에는 사단본부 및 제9연

68) 육군본부 역, 『낙동강에서 압록강까지』, p.333.

69) 상계서, p.341.

대를 분리시키고자 하였던 것이다. 이에 따라 카이저 사단장은 2개 집단으로 편성하여 지휘통제하였으며, 북방에 있는 부대를 사단포병사령관인 하인즈(Loyal M. Haynes) 준장이 지휘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9월 공세시 북한군 제2사단과 제9사단에 의한 도하작전은 성공적이었으며, 특히 제9사단의 기습 도하작전은 부산교두보 작전에 최대 위협을 가하였다. 당시 북한군은 6마일의 폭과 8마일 깊이의 돌파구를 형성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교두보확보 이후 전과확대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8월 공세시 영산전투와는 다르게 북한군 전차부대들은 수중교를 설치하여 8월 31일 야간에 강 동안에 진출할 수 있었다. 당시 기계화부대 도하는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하고 도하자재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보병과의 혼합도하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어서 사단 주력부대와 기계화부대에 의한 교두보 확보 단계로 이어졌다. 북한군 제9사단은 9월 1일 보병이 영산을 점령하기 위해 진출하였고 제9사단에 할당된 제16땅크여단 소속 5대의 전차는 보병을 지원하기 위해 오봉리 능선으로부터 영산을 향한 도로에 나타났다. 하지만 이날 오후 3시가 넘어 미 제2사단 제2전투공병대대는 미 공군기와 지상부대의 합동작전으로 북한군 전차를 모두 파괴하였다. 9월 2일 밤에도 전과확대를 위해 투입된 5대의 북한군 T-34 전차는 미 해병의 전차부대에 4대가 격파되었고, 1대는 유기되었다. 9월 3일에는 보병과 동반한 북한군 T-34전차 2대가 은폐된 진지로부터 미 해병의 M-26전차 2대를 순식간에 파괴하였으나 미군이 3.5인치 로켓에 의하여 결국 파괴되었다.<sup>70)</sup> 이 3일간의 전차전으로 북한군은 비록 수중교를 통해 제2제대인 전차부대까지 신속하게 도하하였지만, 영산으로 진출하기 위한 전차부대의 전과확대가 달성되지 못하면서 9월 공세시 영산전투에서도 패하고 말았다. 유엔군 방어중심에서의 전차들의 행동은 반드시 땅크지원포와 포병, 항공기 그리고 보병으로 보장되어야 하지만,<sup>71)</sup> 이와 같은 전투보장이 없었기 때문에 전차전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

70) 김광수, 『한국전쟁 중 북한군의 기갑운용 연구』 (서울: 화랑대연구소, 2004), p.57.

7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민족보위성 총참모부, 『장갑땅크 및 기계화부대 전투규정』 제2부-대대, 련대, 련단(1949년도판), p.113.

한 것이다. 또한 유엔군의 대응 때문에 북한군의 전과확대는 제한되었다. 워커는 9월 1일에 낙동강의 서쪽에서 북한군이 탄약, 보급물품, 부대 및 장비 등을 동쪽으로 보강하지 못하도록 극동공군의 화력을 요청하는 한편, 미 2사단 전선에 나와 사수명령("Stand or Die")을 하달하고, 가용한 예비대였던 미 5해병연대를 투입하도록 하였다.

#### 4. 맺 음 말

지금까지 북한군의 도하작전 교범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것이 8, 9월 공세시 영산전투에서 어떻게 구현되었는지 살펴보았다. 머리말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북한군이 어떻게 낙동강 방어선이라는 천연적인 장애물을 극복하고 도하에 성공할 수 있었으며, 또한 성공적인 도하 이후 교두보를 확장하지 못하고 패퇴할 수밖에 없었는지 요약, 정리하여 글을 맺고자 한다.

먼저 장애물을 극복하고 도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이다. 당시 낙동강 돌출부였던 영산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지형적으로 유리하였다.<sup>72)</sup> 먼저 낙동강은 북한군 진출에 있어서 주요 장애물이었다. 즉, 북한군은 사전 도하 장비가 제거된 상태에서 낙동강을 도하해야 하는 어려움을 극복해야 했다. 또한 낙동강을 감제할 수 있는 고지와 능선의 발달은 북한군에 대한 관측은 물론이고 화력지원을 용이하게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천연적인 장애물의 이점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은 8, 9월 공세 영산전투에서 모두 낙동강 도하에 성공하였다. 초기 도하작전에 성공한 요인은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하나는 도하작전 교리에 입각한 전투수행이고, 다른 하나는 도하작전을 위한 정찰이다.

첫째, 도하작전 교리에 입각한 전투수행이다. 북한군은 8월 공세시에는 직접 강행도하 교리의 내용을, 9월 공세시에는 계획적 강행도하 교리의 내

72) Uzal W. Ent, *op. cit.* p.204.

용을 적용하여 실제 전투에 적용하였다. 먼저 8월 공세시 영산전투에서는 시기와 장소 그리고 방법측면에서 교범의 내용을 실행하였다. 창녕과 영산 중에서 영산을 도하지역으로 선택하였는데, 이는 교범에서 만곡과 돌기가 있어서 미군에 대한 익측사와 교차사격진행이 가능하며 6개소의 여울을 가진 비교적 도하에 유리하고 편리한 지역이었기 때문이다. 시기에서 있어서도 30% 수준의 전투력이었지만 추격작전에 공격기세와 공격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 유엔군이 방어하기 이전에 대담한 도하 작전을 구사하였기 때문에 8월 하순이 아닌 6일에 도하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법 측면에서 여덟도하, 수영도하, 그리고 허위도하 등의 도하형태가 재현되었다. 이와 같이 8월 공세에서의 시기, 장소, 방법 측면에서의 교리 적용은 기습 은밀 도하의 형태로 초기 도하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야전규정』에서 강조한 도하작전의 기본 요건인 기습을 달성하여<sup>73)</sup> 성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9월 공세시에는 계획적 강행도하의 특징인 철저한 도하준비가 초기 도하작전 성공의 동인이었다. 북한군은 수중교, 부교 그리고 도선판과 밧줄 등 다양한 도하방법을 적용하고 이를 준비하였다. 중화기 부대가 보병부대에 후속하여 신속하게 도하하기 위해서는 도하 장비 세트가 반드시 필요하였다. 하지만 1950년 4월에 소련에게 요청한 도하 장비 5개 세트 중 1개 세트만이 도착하였기 때문에<sup>74)</sup> 이를 대체할 장비가 필요하였다. 현지에서 가용한 드럼통, 밧줄 등을 활용하여 야간 도하작전을 위해 밤에는 설치하고, 낮에는 해체하는 방식의 부교를 건설하였다. 특히 기항과 박진 나루터에 설치된 수중교는 교범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당시 소련고문관의 지도하에 스탈린그라드 전투 경험을 활용하여 8월 공세시부터 설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낙동강 도하계획 일람표는 교범 부록에 나타난 도하계획 일람표와 양식뿐만 아니라 각종 전투보장대책, 공병소대의 운용, 도하제대의 편성 등이 초기 계획적 도하작전 성공에 기여하였다.

둘째, 도하작전을 위한 사전 정찰이 성공의 요인이었다. 지형 및 적 방어

73)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p.155.

74) 장준익, 『북한 인민군대사』 (서울: 서문당, 1981), p.145.

에 대한 정찰은 『야전규정』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도하자재의 집중, 화력(포병, 항공기)의 지원과 함께 도하자작전 성공의 기본 요건이다.<sup>75)</sup> 8월 공세시 피난민으로 가장한 전투정찰은 도하지역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방어 전연, 장애물, 포병진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고, 이는 오항나루터 도하 이후 포병진지를 위협하는데 기여하였다. 9월 공세시 수색정찰은 더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우군 복장과 암호호를 식별한 상태에서 도하지점뿐만 아니라 미군의 전차 등 주요 장비를 파괴하기도 하였다. 또한 사단 포병진지를 식별하여 침투공격하였고, 유엔군의 만주작전을 사전 식별하여 강안 경비를 강화하였으며, 작전 실시간에 만주작전을 지원하는 화기중대의 위치까지 식별하여 이를 공격하였다. 이외에도 각 연대 도하장소에 대한 지형 정찰까지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수색정찰은 실제 도하자작전간 미군의 주요 부대 위치를 식별하여, 미군 주력을 분리하면서 도하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기여하였다.

반면 8월 공세시 영산전투에서 미 제24사단의 병력과 장비가 낙동강 방어선 이전의 전투로 인하여 약 50% 정도 감소되었으며, 예하 제19, 21, 34연대와 국군 제17연대의 병력으로 약 34마일에 이르는 광정면에 대한 방어는 제한되었기 때문에 처치(Church) 소장은 제19연대를 예비로 하고, 제21, 34연대에서 각 1개 대대를 연대 예비로 편성하여 시의적절한 역습으로 북한군의 도하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기동방어 개념을 구사하였다.<sup>76)</sup> 그러나 북한군의 의도와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북한군에 의한 포병대대 침투 등에 대해 오판하였기 때문에 북한군 기습 은밀 도하를 허용하였다. 9월 공세시 영산전투에서는 북한군의 도하자작전 준비를 방해하기 위해 항공정찰 및 폭격 그리고 포병화력, 특임대 편성에 의하여 부교를 제거하였고, 또한 주요 나루터 일대에(9연대 북단의 G중대, 남단 기항 나루의 A중대) 전차를 배속하여 운용하였다. 또한 사단장 지휘소를 타격하는 만주작전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적극적인 도하 저지 노력은 북한군의 정보망

75)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p.155.

76) Uzal W. Ent, *op. cit.* p.204.

에 의해 그 기도가 노출됨에 따라 오히려 북한군의 기습 도하로 이어졌다.

교두보 확장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결국 영산전투의 승리는 유엔군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렇다면 북한군이 성공적인 도하 이후 교두보를 확장하지 못하고 패퇴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교두보 확장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결국 영산전투의 승리는 유엔군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북한군 교리에 입각하면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제공권 상실에 따른 전투보장대책의 미흡과 도하 장비 세트의 부족, 그리고 병력의 분산 운용에 기인한다.

첫째, 제공권 상실에 따른 전투보장대책의 미흡이다. 도하작전간 항공대 폭격 지원은 필수적 요소이다. 『야전규정』에서는 도하작전 요구조건 중의 하나는 포병과 항공기의 화력지원이며, 원칙적으로 도하는 적의 방어를 포병과 항공기로 제압한 후에 실현하거나 반드시 화력 엄호하 실시하도록 하였다.<sup>77)</sup> 『강행도하』에서도 계획적 강행도하는 주간과 저녁에는 포병사격과 항공대 폭격과 함께 진행하거나, 야간 암흑시에는 포병사격과 항공대 폭격 없이 혹은 포병사격과 항공대 폭격의 지원하여 진행된다. 또한 직접 강행도하시에도 각종 화력 및 항공대의 철저한 엄호하에 진행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8월 공세시에는 직접 강행도하의 필수적 요소인 항공대의 지원과 미군을 압도할 포병화력이 제한된 상태였기 때문에 기도를 노출하지 않고 야간 도하하였으며, 9월 공세시에도 항공기 폭격 지원 없이 포병 화력 지원하에 안개가 낀 기상을 활용하여 기습 도하하였다. 또한 북한군은 제공권을 상실하였기 때문에 전투보장은 고사하고 낙동강 대안으로 보급선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즉, 미 극동공군의 공중폭격은 북한군이 탄약, 보급물품, 병력 및 장비 등을 동쪽으로 보강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비록 제공권 상실을 포병 화력 지원하 기습도하로 보완하여 초기 도하작전은 성공하였지만, 이후 낙동강 대안으로 보급선을 유지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교두보를 확장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도하 장비 세트 부족으로 공격 주도권을 유지하지 못하였다. 도하

77)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야전규정』, pp.155~157.

장비 세트 부족에 따른 문제는 금강 도하 작전시에도 발생하였다. 미 공군의 지속적인 주간 폭격 때문에 주간 전차 도하는 어려웠고, 야간 도선판 도하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14일에 북한군 4사단이 금강을 도하한 이후 18일이 되어서야 중장비 부대가 금강을 도하할 수 있었다.<sup>78)</sup> 8월 공세시 북한군은 보병부대의 여덟도하 이후 중화기 부대를 신속하게 도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교두보를 확장하지 못하였다. 사단의 주력부대는 제1제대 도하 이후 4시간 이후에 도하해야 하지만, 8월 공세시에는 6일에 제1제대 도하 이후 4일 후인 10일 밤에 수중교를 완성한 이후에 비로소 기계화부대와 중장비를 도하시킬 수 있었다. 즉, 도하 장비 세트 부족으로 공격기세를 유지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미군이 재편성 및 반격의 시간을 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북한군은 더 이상 진출할 수 없었던 것이다.

셋째, 작전지도 측면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 병력의 분산 운용이다. 『강행도하』 교범에 의하면 계획적 강행도하는 집단군 사령관 혹은 사단장이 조직하고, 직접 강행도하는 사단장 혹은 여단장이 조직한다. 집단군사령관이 계획적 강행도하를 조직하는 경우, 통상 제1제대 사단의 도하 이후 군단의 주력 부대인 제2제대를 편성하여 교두보를 확장할 수 있도록 편성하고 있다. 북한군도 군단을 편성하였기 때문에 낙동강에 대한 도하작전을 2개 제대로 편성하여 운용할 수 있었다. 하지만 북한군은 각 사단별로 도하하여 초기 도하작전의 기습에는 성공하였으나, 후속하는 제2제대가 없었기 때문에 각 사단의 공격한계점이 군단의 공격한계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따라서 교두보 확보단계까지 성공한 북한군의 초기 도하작전은 이후 돌파구를 확장하지 못하고, 증원된 미군의 예비대 운용과 북한군 후방에 가한 보급지원 타격이 더해짐에 따라 실패하게 되었다. 도하작전의 종료 시점이 군단 제1제대 사단의 대안으로의 진출 및 전개이므로 병력의 분산 운용은 도하작전의 실패보다는 도하작전 이후 차후작전의 실패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78)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편역, 『소련군사고문단장 라주바예프의 6·25전쟁 보고서』 제2권 (서울: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1), p.24.

지금까지 8, 9월 영산전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948년에 소련군의 교범을 번역하여 발간한 『강행도하』는 6·25전쟁 초기 도하작전에 거의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작전 실시간 소련고문단의 조언이 추가되면서 도하작전 승리에 기여하였다. 즉, 교범도 없이 전쟁을 수행한 국군과 달리 북한군은 교리에 의한 전투를 수행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고질적인 문제인 제공권의 상실, 도하장비의 부족, 작전지도 미숙 때문에 결국 교두보 확장에는 실패하여 낙동강 전투에서 패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6·25전쟁 도하작전은 현재의 문제이기도 하다. 6·25전쟁의 경험은 새로운 북한군 교범에 반영되었고,<sup>79)</sup> 『강행도하』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도하작전의 요소, 성과 달성요인 등 전투기술은 현 북한군 교범에도 그대로 기술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6·25전쟁시 북한군의 도하작전 연구는 향후 북한군의 강행도하에 대비하기 위한 국군의 하천선 방어 교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원고투고일 : 2011. 1. 1, 심사수정일 : 2011. 1. 21, 게재확정일 : 2011. 2. 1.)

주제어 : 도하작전, 북한군 교리, 북한군 전술, 낙동강 돌출부, 급속도하, 정밀도하, 수중교, 정찰

79) 북한군은 과거 계획적 강행도하 위주의 교리에서 직접 강행도하 중심의 교리로 변화하게 되었으며, 이는 북한군 교범에 반영되어 있다. 북한군 교리 22-9-2 『집단군(군단)·사(여)단』 (정보사령부, 2009), p.258.

<ABSTRACT>

## A Study o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s Crossing Operations in the *Yeoungsan* Battle

Jang, Sung-jin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NKPA) accepted and translated the Soviet Military Doctrine before the Korean War(1950~1953), and so the Soviet Military Doctrine affected the North Korea way of the battle. Particularly the "Crossing Operations" doctrine is an important matter because of the configuration of the Korea ground-*Han* River, *Geum* River and *Nakdong* River. And so the North Korea recognize the fact that crossing operations were important but they didn't have sufficient troops and equipment for this operations. But NKPA executed the crossing operation at early combat in Korean War by the military doctrine, NKPA's FM "Crossing Operations". Therefore this study show that how the military doctrine executed in the *Nakdong* Bulge Battle.

The river crossing operations classify into two groups, elaborate-crossing and prompt-crossing operations. The *Nakdong* Bulge Battle at the NKPA's August Offensive was not elaborate-crossing, but prompt-crossing operations. The NK 4th Division could secure a bridgehead by surprise attack through the crossing *Nakdong* River in secret. But they didn't extend the bridgehead. At first reason is that they delayed the heavy equipment(like as tank and artillery) crossing operations because that they did not have equipment for this operations. The Second is that decision of Walker and counterattack of the Marine Brigade.

The *Nakdong* Bulge Battle at NKPA's September Offensive was elaborate-

crossing operations. They did make a thorough preparation the crossing operations for success. For example, they prepared the underwater bridge, raft bridge, personal equipment and others. Particularly their patrol get information about the enemy's movements. Through this preparation of crossing operations and patrol, the NK 2nd and 9th Divisions also could secure a bridgehead. They could clear obstacles like enemy's tank and an artilleryman, separate US 2nd Division, and cross the heavy equipment. But NKPA didn't extend the bridgehead. The first reason is that their concept of the crossing operations was only division grade operations, not corps grade operations. If September Offensive was corps grade operation, they had hold the succeed division and so could gain a decisive victory at the *Nakdong* bulge. But they didn't. The secondary reason is that decision of Walker and counterattack of the Marine brigade.

Key Words : River Crossing Operations, The North Korean Peoples Army (NKPA)'s Doctrine, NKPA's Tactics, Elaborate-crossing, Prompt-crossing, The *Nakdong* Bulge(*Yeongsan*), Underwater Bridge, Patrol

